

## 미 인도-태평양 전략 중추로 부상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과제

김양규(EAI; 서울대학교)

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워싱턴DC를 공식 방문(Official Visit)<sup>1</sup>하고 국민만찬, 미일정상회담, 미 상·하원합동연설, 미-일-필 정상회담 일정 등을 가졌다. 현직 일본 총리의 공식방문은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방미 이후 9년 만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들어 인도, 호주, 한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 국민 방문이다. 회담 이전부터 기시다 총리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주일미군의 지휘통제 구조 현대화 및 일본의 오키스 필러 2(AUKUS Pillar 2) 가입 등이 공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본고는 미일 양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s for the Future)”로 요약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것이 향후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미국 동맹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내 일본의 위상과 역할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국방 및 대중·대북전략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sup>1</sup> 일본 총리의 경우 국가원수(head of state)가 아닌 정부의 수장(head of government)이기 때문에 공식방문이라고 명명했을 뿐 실제 구성과 예우는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국민방문급으로 진행되었다.

---

## I.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주요 의제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 전환점(historic turning point)”에서 일본이 국방 태세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Montgomery, Ogura, and McCarthy 4/7/202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북러연대 강화,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공격,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에 대한 중국 해안경비대의 물대포 공격, 북한의 공격적 핵전략과 미사일 위협 고조 등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 격화에 따른 미국의 부담 증가로 인해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일본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진행되는 주요 외교 이벤트였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라는 대형 정치 악재 속에 지지율이 10-20%를 오가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고, 최근 일본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모시토라(もしトラ, 혹시라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라는 신조어에서 보듯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을 앞두고 바이든-기시다 시기에 강화된 미일관계를 가능한 한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도 중요했다.

4월 10일에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을 통해 양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지역질서를 구축하고, 미일동맹이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 7대 의제를 논의하였다고 밝혔다(The White House 2024b). 즉, 국방 및 안보협력 강화,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 개척, 기술혁신 동력 확보, 경제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외교 및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인적교류 강화가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향후 인태 지역 정세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안건은 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구상들이다(The White House 2024a). 주목할 만한 변화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동맹 지휘통제 능력 강화(Upgrading Alliance Command and Control)이다. 미일 군사력의 평시 및 전시 작전과 상호운용(interoperability) 능력의 증진을 위해 양국 지휘통제체제를 개선하여 “작전 및 능력의 매끄러운 통합(seamless integration of operations and capabilities)”을 추구한다. 둘째, 오커스(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국가들과 일본의 양자 관계와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고려하여 오커스 필라 2의 능력 강화 프로그램에 일본이 포함

---

되는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호주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 안보태세(Regional Networked Security), 특히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방공구조(air defense architecture) 연결망 구축을 추진한다. 넷째, 방위 산업 협력, 획득 및 유지(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Acquisition and Sustainment: DICAS) 포럼을 실시하여 방공미사일이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조종사 훈련 등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생산·유지하는 영역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섯째, 일본의 민간 조선소에서 인태지역 내 전진 배치된 미 해군 자산의 정비가 가능하게 하고, 일본 내 4세대 전투기 엔진의 정비 가능하게 하는 등 지역 정비 능력(Regional Maintenance and Repair Capabilities)을 제고한다. 여섯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능력을 지원하여 일본의 원거리 지상공격 능력을 향상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활공단계요격체계(Glide Phase Interceptor: GPI)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일곱째, 미-일-호, 한-미-일 정보정찰능력 공유 및 연합훈련을 강화한다.

## II. 미국 인태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한 미일동맹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강조된 이러한 안보협력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인태지역 미국의 동맹 운영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물론 합의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이후 실제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더 중요하겠지만, 이번 합의의 내용만을 놓고 평가해보면 앞으로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군사전략의 중심축은 미일동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첫째, 오커스 필라 2에 일본이 비서구권 미 동맹국 중 최초로 가입한다는 것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일본의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동맹체제 내 일본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 핵 추진 공격잠수함을 도입하는 오커스 필라 1에 비해 오커스 필라 2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6개 영역에서의 군사기술 협력(예. 무인 수중드론, 양자기술, 인공지능과 자율 무기체계, 사이버전 역량 강화, 극초음속 미사일 및 반극초음속 능력 개발, 전자기전 능력)이라는 면에서 필라 2는 필라 1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신 국방전략의 핵심 개념인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가 미군 자산과 동맹국 군사력의 ‘매끄러운 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상호운용성의 증진을 강조한다는 점(The White House 2022), 특히 미국의 대중 디리스팅(de-risking) 전략의 전제가 첨단기술의 군사적 이

---

용 경쟁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중 전략경쟁의 승자를 결정지을 영역의 기술은 모두 오커스 필라 2에 있다(Christianson, Monaghan, and Cooke 2023). 새로운 무기 개발과 생산, 정비에 있어서도 미일 간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영미권 국가로만 구성된 오커스에 일본이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 인태지역 동맹 운영체계의 중심축으로서 일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연합군 지휘통제 체제의 현대화가 이뤄진다면 인태지역 내 독자적 작전 능력을 보유한 강력한 군사 중심으로서 주일미군이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약 5만 4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은 해외주둔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전력 모두가 배치되어 있다(O'Dell 2023). 미국의 유일한 전진 배치 항모전단인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레이건 항모(USS Ronald Reagan)의 모항도 주일미군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주일미군이 지역 내 여러 군사작전의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했던 것은 3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관이 독자적 작전 지휘 권한이 없고 하와이에 소재한 미 인태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USINDOPACOM)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Johnstone and Schoff 2024). 물론 일본 평화헌법으로 인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기능 및 목적상 차이점과 국가 주권의 핵심인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 넘기는 것에 대한 일본 사회의 거부감으로 인해 주일미군이 한미연합사(Combined Forces Command: CFC) 수준의 통합된 지휘통제 체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은 작다(Takahashi 2024). 그러나 2023년 1월 미일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SCC)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군 지휘구조 현대화 목표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만큼 현재보다 강화된 형태의 미일 연합지휘체제 구축이 멀지 않은 시기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의 인태지역 전략의 “주춧돌(cornerstone)”로 미일동맹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미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Pat Ryder) 대변인(공군 소장)은 미일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국의 동맹 중에서도 “중심(core)”이며 “인태지역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the cornerstone of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이라는 점을 강조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실제 미일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는 미사일 방어 정보공유 지역 네트워크, 감시 정찰 작전 협력, 연례 연합군사훈련 등에서 미-일-호, 한-미-일, 미-일-영, 미-일-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동맹협력의 중심에 일본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국의 동맹체제 내에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직관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것은 기시다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이다. 연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힘을 소진하며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쳐 있지만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대체불가능(indispensable)”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closest tomodachi, ともだち)”로 미국의 짐을 함께 질 것이기에 “미국은 혼자가 아니라(You are not alone. We are with you.)”고 역설했다(Nikkei Asia 2024). 중국에 대해,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미국과 완벽히 일치된 전략 목표와 방향을 가진다는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 III. 한국의 과제: 국방혁신 및 대중·대북전략 조정

인태지역 미국 동맹운영체제의 주춧돌로 일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추진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는 국방혁신 4.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국도 오커스 필라 2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국방혁신 4.0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추진한다(국방부 2023).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 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대 중점과 16개 과제의 핵심에는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전 영역 통합능력 강화’가 있고 이는 모두 오커스 필라 2 기술협력 리스트에 포함된 역량들이다. 물론 2023년 12월에 출범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Next Generati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Dialogue)’도 AI, 양자과학, 반도체 등을 포괄하지만, 이는 경제 안보 영역에서 한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첨단과학 기술의 군사적 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커스가 미국 동맹체제 내 상호운용성 증진의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이번을 계기로 한국도 오커스 필라 2 가입을 위해 미국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뒤따르는 가격표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과 적절한 대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쿼드와 달리 오커스는 명백히 대중군제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기에, 한국이 이에 가입할 시 중국의 반발은 거의 확실시된다. 따라서, 오커스 필라 2에 가입할 때 한국은 점증하는 대북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핵심 이유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의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선명한 태도 표명에 토대를 두고



---

있음을 생각할 때, 한국도 장기적 국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대중전략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미중경쟁 사이에서 한국식 맞춤형 디리스킹 전략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대전략 차원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북한의 경계와 반발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첨단기술 기반 국방력 강화 협력은 국방혁신 4.0의 제1 목표인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의 핵심인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해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은 대북 억지력 강화의 자산이 동시에 북한 정권의 종말을 위한 선제타격 능력이 될 수도 있다. 대량응징보복 능력이 제고됨으로 인해 북한이 정권 안보에 불안을 느끼게 되면 한반도 내 안보딜레마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남과 북의 재래식 대 핵전력의 비대칭적 군비경쟁 심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첨단기술에 기반한 혁신적인 한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이 방어 자산 역량 제고를 중점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교리 및 원칙 천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거나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한국군은 대량응징보복에 나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표명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결합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오키스 필라 2 가입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미-일을 압박하며 한국의 이탈을 유도하려 할 수 있다. 북한도 ‘신냉전 외교’를 내세우며 한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중국의 행보에 편승하여 더 많은 이득을 확보하려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오키스에 가입하며 국방혁신을 이룩하려는 노력은 중국 및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어적 의도’를 담은 일관된 메시지의 발신 및 적극적 대화 추구하고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북한과 대화 노력 및 원칙적 외교·관여의 중요성이 논의된 바 있다.

끝으로 이번 미일동맹 강화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의 결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자국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s: GDP)의 2퍼센트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토마호크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 능력 보유, 일본 자위대 통합사령부 신설 등과 같은 노력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다. 한국도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구(self-help)적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우크라이나 및 중동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국방부. 2023.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브리핑. 3 월 7 일.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3452>.
- Christianson, John, Sean Monaghan, and Di Cooke. 2023. “AUKUS Pillar Two: Advancing th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CSIS. July 10. <https://www.csis.org/analysis/aucus-pillar-two-advancing-capabilities-united-states-united-kingdom-and-australia>
- CSIS. 2024. “Previewing the Japanese Official Visit and Trilateral Leaders’ Summit.” CSIS Press Briefing. April 2. <https://www.csis.org/analysis/previewing-japanese-official-visit-and-trilateral-leaders-summit>.
- Johnstone, Christopher B. and Jimm Schoff. 2024. “A Vital Next Stop for U.S.-Japan Alliance: Command and Control Modernization.” CSIS. February 1. <https://www.csis.org/analysis/vital-next-step-us-japan-alliance-command-and-control-modernization>.
- Montgomery, Hanako, Junko Ogura, and Simone McCarthy. 2024. “Japan’s Kishida warns world at ‘historic turning point’ as he touts US alliance ahead of Biden summit.” CNN. April 7. <https://edition.cnn.com/2024/04/07/asia/japan-kishida-us-defense-intl-hnk/index.html>.
- Nikkei Asia*. 2024. “Full text of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s speech to U.S. Congress.” Aril 12.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Full-text-of-Japanese-Prime-Minister-Kishida-s-speech-to-U.S.-Congress>.

---

O'Dell, Hope. 2023. "The US is sending more troops to the Middle East. Where in the world are US military deployed?." Bluemarble. October 25.

<https://globalaffairs.org/bluemarble/us-sending-more-troops-middle-east-where-world-are-us-military-deployed>.

Takahashi, Kosuke. "Deeper and Wider Defense Integration Tops Japan-US Summit Agenda." The Diplomat. April 12. <https://thediplomat.com/2024/04/deeper-and-wider-defense-integration-tops-japan-us-summit-agenda/>.

The White House. 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1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The White House. 2024a. "FACT SHEET: Japan Official Visit with State Dinner to the United States." Briefing Room. April 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0/fact-sheet-japan-official-visit-with-state-dinner-to-the-united-states/>.

The White House. 2024b. "United State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Briefing Room. April 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0/united-states-japan-joint-leaders-statement/>.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Pentagon Press Secretary Air Force Maj. Gen. Pat Ryder Holds a Press Briefing." April 11.

<https://www.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Article/3739158/pentagon-press-secretary-air-force-maj-gen-pat-ryder-holds-a-press-briefing/>.



---

■ **저자:** 김양규\_EAI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4월 22일  
“미 인도-태평양 전략 중추로 부상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과제”  
979-11-6617-737-8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